

성별	여	나이	27세	직종	검사공정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이○○은 2002년 11월 Q반도체 공장에 입사하여 판넬 화질 검사공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6년 5월부터 우측 손과 팔 다리 저림 증상과 오른쪽 눈의 시력 저하 등의 이상증세로 2007년 2월 퇴직하였다. 2007년 3월 뇌경색 및 경추통, 척추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8년 P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 2. 작업환경

이○○은 Q반도체에 약 4년 3개월동안 LCD 판넬의 화질 검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입사 후 2003년 5월까지 3조 2교대로 12시간 맞교대를 하였다. 그 이후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 잔업과 불량 발생시 재검사로 연장근무가 있었다. 검사공정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제품사양을 숙지하고 육안검사를 하며, 방진복을 입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이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사과정(육안검사)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업무 중 3~4회 사용하여 판넬과 팔렛 등을 닦았다. 보호구 착용은 방진복을 입었고 2006년부터는 제전복도 착용하였다.

## 3. 의학적 소견

신경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등 특이한 증후군을 동반하는 질환에 대한 가족력은 없었다. 2003년부터 아토피성 결막염,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상세불명의 관절증, 경추상완 증후군, 한성건비통,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어깨의 염좌 및 긴장등 정신신체증상으로 알려진 다양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 입

사 후 4년 팔다리 저림 증상으로 근처 정형외과에 방문하였고, 2007년 오른쪽 눈의 시각장애와 팔다리 저림으로 퇴사하였으며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2008년 7월 시각장애로 P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 4. 고찰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직업적 원인으로 유기용제 노출, 농약, 결정형유리 규산, 자외선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밝혀진 연구는 드물지만,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발현과 재발, 악화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는 다수 있다.

#### 5. 결론

이○○의 다발성 경화증은

- 노동강도를 볼 때 업무강도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며, 업무자체가 다발성 경화증 자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고 기왕증으로 내재하고 있던 상병을 업무가 초기에 발현토록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 업무의 특성과 강도의 정도를 따져서 관별해 보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단, 작업내용이 매우 스트레스가 높고, 목과 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개선요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